

“석유공사 동해비축기지 본사직영 전환 ‘질타’” 기사 관련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 보도매체 : 포커스뉴스, 매일일보, 강원신문(2016. 9. 27)
- 제목 : 이철규의원, 석유공사의 동해비축기지 본사직영 전환 ‘질타’, 석유공사의 비용절감 노력 ‘소가 웃을 일’
- 보도요약

〈민간위탁 용역업체 직원해고의 국정기조 부합여부〉

- 16년 정부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까지 하는 상황에서 석유공사가 비용절감을 사유로 16년간 민간위탁중인 동해 비축기지를 공사직원 직영체제로 전환할 계획임에 따라 민간위탁 용역업체 직원 21명이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정부의 국정기조와 부합하는지 의문임.

〈직영화 추진시 비용증가〉

- 석유공사는 연간 약 14억원의 민간위탁 용역비 절감과 안전성 제고를 이유로 직영전환할 계획이나, 위탁관리용역 인건비는 총 8억 2,600만원으로 1인당 약 3,934만원에 불과하여 석유공사 전체직원 평균인건비 약 7,100만원 (용역감독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 3억원)을 감안할 경우 오히려 비용이 증가할 것이 자명함.

〈공사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 우선 필요〉

- 석유공사 사장 부임 이후 경영관리본부장 및 기획예산본부 고문을 새로이 채용, 이들 3명의 총 연봉은 약 3억원 수준으로 석유공사 본사 고위직 직원들 스스로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이 더 시급한 상황임.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석유공사의 입장

<민간위탁 용역업체 직원해고의 국정기조 부합여부>

- 해당 지역구 의원이 동해·삼척지역의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점을 이해 못하는바 아니지만 동해기지 용역업체 직원 21명이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공사는 당초 식당 및 청소인력 2명을 제외한 19명에 대한 용역해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철규 의원실의 요청을 반영, 우선 12명만 축소하고 9명은 2년간 재고용할 계획으로 이철규 의원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 하였음.
- 12명의 용역직원에 대해서도 재취업 기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 용역직원 재취업기회 지원 계획
 - 전체 21명 중 9명에 대하여 2년간 재고용
 - 2016.10.1.~12.31(약 3개월) 특별 유급휴가 부여 등 재취업기회 적극 지원
 - 석유공사 용역업체(동북아 오일허브사업, 5개 해양시설관리용역, 9개 비축기지 경비용역) 직원 채용시 취업알선
- 이러한 석유공사의 입장을 2016.6월 이후 이철규 의원실에 여러차례 사전 설명하여 왔음.
- 동해 직영화는 석유공사가 경영악화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본사 및 지사 인원을 축소하고, 동해기지에 재배치하여 용역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정부의 국정기조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직영화 추진시 비용증가 관련>

- 민간위탁관리용역 인건비는 총 8억 2,600만원으로 1인당 약 3,934만원에 불과하여 석유공사 평균인건비 약 7,100만원을 감안할 경우 오히려 비용이 증가할 것이 자명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직영화는 현재 근무 중인 석유공사 인원을 증원 없이 재배치하는 것으로 석유공사의 인건비 증가 없이 용역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절감되는 것임.

- 2017년 동해기지 민간위탁 용역비는 약 14억원이며, 이는 석유공사 총 인건비 (1,145억원)의 약 1.22%에 해당하는 큰 금액임.

<공사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이 우선 필요하다는 내용관련>

- 2016.4월 처실장 이상 고위직 54명중 14명을 축소하였으며 직원 연봉 10% 반납(102억원) 및 해외수당 30%삭감(26억원), 조직규모 축소(2개 본부, 10개 처실 및 해외사무소 폐지), 인원감축, 사옥매각, 사업비 축소 및 비용절감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이미 추진 중에 있음.
- 이번 직영화로 공사의 2016년 기준 총인건비의 약 1.22%(약 14억원)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음.